

내년 V리그 10월 18일 개막...KOVO컵은 여수에서

배구연맹,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내년 남녀부 252경기

24-25 올스타전 1월 4일 춘천...페퍼스 박정아·장위 출전

2025-2026시즌 V리그가 내년 10월 18일 막을 올린다. 2025 KOVO컵은 여수에서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8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제21기 제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 V리그 경기 일정을 비롯해 프로배구 차기 시즌 운영과 관련한 사안들을 결정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남녀부 14개 구단 단장은 정규리그 개막일로 2025년 10월 18일을 확정했다. 각 구단은 2026년 4월 7일까지 총 6라운드를 치르게 되며, 경기 수는 이번 시즌과 동일한 남녀부 각 126경기로 총 252경기가 진행된다. 기존 대로 주중에는 오후 7시, 주말은 남자부 오후 2시, 여자부 오후 4시에 경기가 시작된다. 월요일이 휴식일이지만, 설 연휴에도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2026년 2월에만 휴식일이 목요일로 변경된다. 이는 팀별 7일간 3경기를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3월 2일이 3·1절 대체 공휴일인 만큼 이날 경기를 치르는 대신 다음 날로 휴식일이 조정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 외국인선수 트리아아웃·아시아쿼터 개최와 리그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의

제도 다뤘다. 이사회 결과 2025 외국인선수 트리아아웃과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개최 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내년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은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기존 남녀부 일정을 따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동시에 진행된다. 또 전체 행사 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현장 참여만 허용했던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역시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KOVO는 클럽·국가대표팀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선수들이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어 우수 선수 및 대체 선수 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드래프트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여자부 아시아쿼터의 지명권 주점 방식도 달라진다. KOVO는 하위권 팀의 전력 보강을 위해 여자부에 한해 직전 시즌 기준 하위 3팀(7위 40%, 6위 33.3%, 5위 26.7%)을 차등 확률로 1차 주점하고 상위 4팀(25%)을 동일 확률로 2차 주점했지만,

2025년부터 남자부와 동일하게 7개 구단 모두 구슬 10개씩의 주점 확률을 부여한다. 2025 KOVO컵 프로배구대회 일정도 확정됐다. 컵대회는 정규리그 돌입 전 상대를 탐색하고 비시즌 동안 갖춘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2025 KOVO컵 개최지는 전남 여수로 선정됐다. 내년 컵대회 남자부는 2025년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여자부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 '대표팀 감독의 국내 프로팀 감독 겸직 여부'와 관련해 2019년 4월 임시이사회에서 합의한 '전임감독제'를 존중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에 라미레스 남자 대표팀 감독의 프로남자배구 KB손해보험 감독 겸직이 무산됐다. 차기 시즌부터 페르난도 모랄레스 여자 대표팀 감독의 푸에르토리코 리그 클럽 감독 겸임도 금지된다. 한편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2025년 1월 4일 프로배구 비연고지 최초로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 KOVO가 실시한 '올스타전 온라인 팬 투표'를 통해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에서는 박정아(아우사이드 히터)와 장위(미들블로커)의 출전이 결정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왼쪽)와 장위가 2025년 1월 4일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KOVO 제공)

전남도체육회, 2025년 예산 229억7300만원 확정

이사회서 사업계획 등 의결...도비 보조금 8억원 증액

전남도체육회가 19일 제57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2025년도 우수선수상과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계획, 2025년도 주요 종합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 9건을 보고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각종 규제정책 개정 등 4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체육회 2025년도 예산은 229억

7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48억4500만원 대비, 18억원 가량 감액됐다. 감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6개 사업의 지자체에 대한 직접 교부로 인한 것이다. 대신 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131억5400만원에서 약 8억2800만원 증가한 143억6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6.1% 가량 증액됐다. 도체육회는 정부의 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

비 보조금을 증액시킨 만큼 2025년도에도 전남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도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으로 열린 전남체육'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 '육성', '화합', '소통'을 핵심가치로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25년도에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등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1년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광산구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상 수상

광주광산구장애인체육회(회장 박병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광산구체육회는 지난 17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4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단체 부문 체육진흥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 등을 선정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산구체육회는 ▲광산구특화형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 ▲자치구 유인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전 종목 상해보험 가입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한 장애인스포츠종목 홍보부스 확대 운영 ▲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재원 확충 등 모범적인 사업 운영을 인정받았다. 한편 광산구체육회는 지난 2023년에는 바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로로 '공로상'을 받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7일 '2024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단체 부문 체육진흥상을 수상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왼쪽)과 광산구장애인체육회 문명남 사무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광산구체육회 제공)

창단 30주년 HL 안양 '다시 뛰는 한국 아이스하키' 비전 선포

국내 유일의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HL 안양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참전한 한국 아이스하키 부흥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 HL 안양은 19일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유소년 아이스하키 인구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믿그림을 공개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본선 진출과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대회 톱 디비전 진출로 한때 세계 16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 아이스하키 실업팀의 해체로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HL 안양은 이 가운데 2년 7개월의 휴지기를 거치고 재개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2023년과 2024년 연거푸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94년 12월 22일 창단한 HL 안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기업 HL(구 한라그룹)의 꾸준한 지원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HL 안양은 2009-2010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첫 정상 등극을 시작으로 총 8차례 챔피언에 올랐고, 6명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배출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HL 안양 선수단이 주축이 됐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아이스하키가 얻은 3골 모두 HL 안양 소속인 조민호, 브락 라던스키, 안진휘가 책임졌다. HL 안양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21일과 22일 안양 아이스아레나에서 닉토 아이스백스를 상대로

2024-2025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2연전을 치른다. 현재 16경기에서 12승 4패, 승점 37로 선두를 달리는 HL 안양은 아이스백스전 2연승으로 창단 30주년을 자축한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전남 역도 꿈나무, 한국중고연맹회장기서 금빛 활약

전남의 역도 꿈나무들이 2024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역도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전남체중 김대진(3년)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남자 67kg급 1위를 차지했다. 김대진은 인상에서 95kg로 2위, 용상에서 119kg로 1위를 기록하며 합계 214kg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완도중 김태양(3년)은 중등부 남자 89kg급 정상에 올랐다. 인상 132kg, 용상 149kg으로 각 1위에 오른 김태양은 합계 281kg를 들며 올림피 금메달을 확정했다. 완도중 추연성(3년)은 남고부 96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추연성은 인상에서 101kg로 3위, 용상에서



완도중 김태양(가운데)이 2024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역도대회에서 남중부 89kg급 1위에 오른 뒤 시상식 단상에 올라 있다. (완도중 역도부 제공)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